

한국인 사구체 신염의 빈도 연구
정청일, 김영찬, 유준호, 한상용, 김호중
한양의대 구리병원 신장기 내과

목적: 한국인의 사구체 신염의 빈도에 대한 일관된 결과가 없다. 본 저자는 한양대 구리병원의 신조직 검사결과와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참조하여 한국인 사구체 신염의 빈도를 추정해 보았다.

방법: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신조직 검사로 사구체 신염을 진단받은 105명을 후향적 분석을 하였고 조직학적 이견이 적은 주요 사구체 신염에 대한 국내 논문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다.

결과: 1) 본 병원에서 사구체 신염을 진단받은 105명의 평균 연령은 37.1세였고(12 ~ 82세), 남녀의 비는 1.1:1이었다. 전체 사구체 신염중 IgA 신병증이 33.3%로 가장 많았고 미세 변화 신증이 17.1%로 다음을 차지했다.

2) 기존의 논문을 참조한 대상자 4,145명중 원발성 사구체 신염은 IgA신병증이 31%, 미세 변화 신증이 24%순이었고 속발성 사구체 신염은 낭창성 사구체 신염이 50%, B형 간염 바이러스와 연관된 사구체 신염이 28%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IgA 신병증이 가장 흔한 사구체 신염으로 나왔으나 신뢰성 있는 한국인의 사구체 질환의 분석을 위해선 대상군과 진단 분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만성신부전 환자의 무증상적 세균뇨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정유석, 이동원, 김용범, 정현철, 이수봉, 박임수, 나하연

목적 : 만성신부전 환자는 면역력의 저하에 의해서 쉽게 감염에 이환 될 수 있으며, 감염은 중요한 입원의 원인이 되며 동시에 예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저자들은 만성신부전에서 세균뇨의 이환율과 유발요인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 2000년 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본원 내원한 요로감염의 증상이 없는 만성신부전 환자 34명(남 13, 여 12), 신기능이 정상인 대조군 30명(남 11, 여 20)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clean catch에 의해 소변검사와 소변 배양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 만성신부전 환자의 평균나이는 54.5세, 평균 크레아티닌치는 6.96mg/dl 였고, 만성신부전의 원인 질환으로는 고혈압 16례, 당뇨 15례, 사구체 질환 3례였다. 그리고 현재 혈액투석중인 환자가 25례, 복막투석중인 환자가 5례였고 나머지는 아직 투석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10^5 CFU/ml 이상의 의미있는 세균뇨는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10/34(29.4%), 정상인에서 1/30(0.03%)로 두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 < 0.05$) 성별, 나이, 투석의 종류, 크레아티닌치, 원인질환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고 뇨노와 세균뇨 사이에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16$)

결론 :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세균뇨의 빈도가 높았고, 정상인에서 관찰되는 당뇨, 고령 등과의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소변 배양에서 검출된 균 중에 대해서는 표본수가 적은 관계로 주요한 원인 균을 알기 어렵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